

러시아 무차별 폭격에 마리오폴 사실상 폐허

지하대피소까지 포탄 불길

식수 고갈에 음식·전기 끊겨

러 최후통첩에 우크라이나 "결사항전"

"아직 많은 이들이 대피하지도 못하고 남아 있어요. 피란 가다가 러시아군 총에 맞을까 무서워서..."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마리오폴이 함락 위기를 맞았다.

러시아군은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냈고, 우크라이나군은 결사 항전을 다짐하며 마지막 일전을 앞두고 있다.

인구 40만여명의 마리오폴은 우크라이나 해안 봉쇄를 노린 러시아군에 침공 초기부터 타격을 당하며 포위가 됐다.

이후 러시아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도시는 기능을 잃었고 사실상 폐허가 됐다.

20일(현지시간) 영국 스카이뉴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마리오폴에 갇힌 주민들의 삶도 더는 지속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하고 있다.

시민들은 집을 버리고 지하로 숨어들었지만, 안전하지 못했다. 곳곳에서는 민간인 피해가 낱지만 제대로 손을 쓸 수도 없었다.

지난달 27일 6살 소녀가 러시아군이 쏜 포격의 파편에 맞아 잠옷을 피로 물들이며 죽어갔고, 지난 2일 16살 소년은 갑작스러운 폭발에 두 다리를 잃었다.

9일에는 산부인과 병원이 포격을 받아 임산부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 18개월 아이는 감당조차 안 되는 파편이 머리에 박혔다.

물도, 먹도, 전기도 끊긴 지 오래됐다. 그나마 눈을 녹여서 식수로 사용하지만 눈마저 없으면 이제 마실 물도 없다.

스카이뉴스는 마리오폴을 떠나 중동부 도시 드니프로로 탈출한 크리스티나 씨 가족 인터뷰를 통해 마리오폴의 참상을 소개했다.

크리스티나 씨 가족은 대피 전 아이 5명을 포함해 시민 200명과 집을 버리고 마리오폴의 한 학교 지하에 몸을 숨겨 지냈다.

"포탄이 학교를 강타했을 때 한 여성이 영당이에 파편을 맞았어요. 그녀는 24시간 누워있었는데, 너무 아파서 차라리 독약을 달라고 소리쳤어요."

그는 마당에 떨어진 포탄으로 한 남성이 두 다리를 잃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앰블런스도 없었다"며 인도주의 위기가 고조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러시아군의 쉴 새 없는 포격에 밤낮없이 벽은 흔들렸고, 공포는 밀려왔다고 했다.

크리스티나 씨는 "눈을 녹여서 음식을 만들 물로 사용했다"며 "200명이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화장실도 깨끗하게 써야 했고 눈이 떨어지면 물도 없었다"고 말했다.

매일 아침 똑같은 옷을 입고 꺼서 같은 옷을 입고 자야 했다.

지하는 춥고 난방장치는 없어 여기저기에서는 기침 소리만 났고 그런 증세는 다른 사람에게 옮겨갔다고 한다.

크리스티나 씨는 시신을 묻을 곳이 없어 여기저기 죽은 사람들이 방치됐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2주 동안 고립됐던 마리오폴은 지난 14일 마침내 민간이 탈출이 시작됐다.

이들 가족은 드니프로에 도착해 빈니차로 이동할 계획이다. 그러나 끝내 탈출하지 않겠다고 마리오폴에 남으신 부모님이 마음에 쓰인다.

올가 불고바 씨는 지난 16일 마리오폴에서 힘들게 사동생이 있는 자포리자에 왔다. 지난달 26일 이후 지하와 밖을 전전하다 처음 집대에 누웠다.

불고바 씨는 마리오폴의 공포를 하루하루 일기로 썼다.

그는 영국 텔레그래프와 인터뷰에서 "3월 12일 오전 4시5분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250명이 넘게 살던 아파트를 포탄이 강타해 대피해있던 지하실까지 불이 급속히 내려온 날이었다고 한다. /연합뉴스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마리오폴에서 러시아군의 포격에 박살이 난 아파트의 주민으로 보이는 여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17일째 러시아군의 포위 공격을 받는 마리오폴 시청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거지역 건물의 약 80%가 파괴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유엔난민기구

"우크라이나 인구 4분의 1이 피란 민간인 최소 902명 사망"

유엔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인구의 약 4분의 1이 살던 곳을 떠났으며 민간인 사망자는 902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인구 1천만명이 국내외로 피란했다고 밝혔다. AFP가 보도했다.

전날까지 국외 피란이 338만9044명에 달하고 이후 6만352명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피란민의 90%는 여성과 어린이다.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은 국외 피란민 중 150만명 이상이 아동이고 이들이 인신매매 등을 당할 위험이 높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엔 등에 따르면 16일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국내에서 피란한 인구는 648만명으로 추정된다.

러시아 침공 전 우크라이나 인구는 3700만명이다. 이는 크림반도와 친러시아 분리주의 지역은 제외한 수치다.

이와 함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9일까지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최소 902명이 사망하고 1459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마리오폴 등에서 로고가 들어오면 수치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민간인 사상자 발생은 대부분 중포, 다연장로켓, 미사일, 공습 등에 의한 것이라고 OHCHR은 말했다. /연합뉴스

중국 작년 763만쌍 결혼

36년 만에 최저

이혼 건수도 42.7% 감소

지난해 중국에서 결혼 건수가 36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21일 중국 민정부 발표에 따르면 작년 중국에서 763만 쌍이 결혼했다. 이는 1986년 공식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다.

2013년 1346만9000쌍이 결혼,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선 중국의 결혼 건수는 2019년(927만3000건) 1000만 건을 밑돌았고, 이후 매년 100만 건 이상 줄고 있다.

2008년 26세였던 결혼 평균 연령도 30세를 넘어섰다.

재일제경은 결혼 적령 인구가 감소한 데다 중국의 젊은 층이 결혼을 기피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결혼 감소에 따라 출생 인구도 줄고 있다. 작년 중국의 출생 인구는 1062만명에 그쳐 대기근 시기였던 1961년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작년 이혼 건수는 213만9000건으로, 1년 전보다 42.7% 감소했다.

2019년 404만3000건에 달했던 중국의 이혼 건수는 2020년 7.7% 감소한 데 이어 작년에 큰 폭으로 줄었다. /연합뉴스

초조한 푸틴, 기당 수백억 극초음속 미사일 세계 첫 실전 사용

전환 풀리지 않자 화력 시위

"무장 바닥났거나 고전 시시"

러시아가 18, 20일 두차례 극초음속 미사일 Kh-47M2 '킨잘'을 우크라이나로 발사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실전에서 쓰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러시아 군사전문가 바실리 카신은 19일 AFP통신에 "이는 극초음속 무기가 실제 전투에서 사용된 세계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 무기는 상당히 고가다. 지난해 10월 미 국방부는 극초음속 미사일 한 기당 수천만달러(수백억원)가 든다고 밝힌 적이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의 준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가동했다는 것은 예상 밖이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갑자기 전쟁 중간에 이런 무장을 꺼내는 사실이 곧 러시아군이 기존 화력만으로는 현 전황을 반전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러시아 방위분석가 파벨 펠젠하우어는 영국 일간 가디언에 킨잘의 등장도 러시아군이 기존 무장을 다 써버린 상황을 시사한다면서도 '선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전환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뱌기에의 군방전략 분석가 조지프 헨로틴도 트위터에 러시아가 기존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 보급이 바닥났거나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무장을 도입해 위력을 높이려는 의도

일 것으로 추측했다. 속전속결로 전쟁을 매듭 지으려 했던 의도대로 전환이 풀리지 않자 러시아가 화력 증대라는 다음 수를 내놓는 증거라는 분석도 있다.

미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전쟁학연구소(ISW)도 19일 낸 보고서 "이런 비싸고 귀한 첨단 무장을 보급창고에 사용했다는 사실은 구체적 군사적 목표 달성보다 (러시아군이) 위력을 보여주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블룸버그통신도 극초음속 무기를 실전에 쓴 것은 고전하던 러시아의 전략 변화를 보여준다고 더 강력한 화력을 쏟아붓는 새 국면이 펼쳐질 신호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서방 군사전문가들은 전환이 점차 교착 상태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민간인 피

해에 아랑곳하지 않고 포격을 늘려 이 상황을 벗어 나려 할 것이라고 예상해왔다.

영국 국방정보국 수장인 짐 호켄셜 중장은 19일 러시아군의 전략이 달라졌다면서 무차별적으로 화력을 쏟아붓는 '소모전'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거듭 민간인은 군사 표적이 아니며 우크라이나 내 군사시설만을 정밀 타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킨잘 등 극초음속 미사일은 일반적으로 음속의 5배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는 미사일로,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차세대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 소형화한 핵무기까지 탑재할 수 있는 까닭에 미국과 러시아, 중국은 물론 북한도 경쟁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문모델 서경석